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경아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Kyeong-Ah Kim*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Hongseong 32244, Korea

(Received April 11, 2016; Received April 17, 2016; Accepted April 25, 2016)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to measure the level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guidance, environment, time, and the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Two hundred thirty-one nursing student from baccalaureate program in H-gun was sampled. A scale consisting of 75 question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September 14 through 27, 2012.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 Self-directed learning didn't show a significant different by grade($t=0.83, p=.934$).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didn't show a significant different by grade($t=0.26, p=.7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r=.44, p<.001$). The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describe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s $R^2=.215(F=9.858, p<.001)$.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depends on a higher degree of self-directed learning. Therefore, nursing faculty should plan intervention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by fostering self-directed learn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 Corresponding Author : kka-book@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뿐 아니라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간호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과정이다¹⁾. 이렇게 중요한 임상실습이지만 예측할 수 없고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간호전문직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간호직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²⁾.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시 능력부족, 무능함과 불확실성,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마음 상하는 것, 통제력 부족, 지도교수와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관련되는 요인들이 많이 조사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실습의 주체가 되어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¹⁾.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자주적, 자율적, 창의적 자기학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지식의 수용과 보수적 보유보다 지식의 창조적 창출과 협력적 공유를 요구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삶의 전략이다. 특히 현대사회와 미래는 고등정신 능력과 이를 통제하는 자기통제능력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되고 있다³⁾.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으로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학습을 말한다¹⁾. 이와 같이 성인학습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개념과 달리 대학교육에서의 학생들은 교수의 안내와 도움을 충분히 받는다는 전제하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되,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수-학습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생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임상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학습해야 할 과제를 가졌을 때 먼저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다.

학습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더 잘 배우게 된다. 따라서 현대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새로운 탐구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과 모든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활용하고 또한 교육을 평생 과정으로 생각하여 지식·기술이해력·태도·가치를 습득해 나가는데 자기 주도적 탐구기술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⁴⁾.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의 지식기반 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임상실무에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와 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돕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코자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파악한다.
- 2)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 상태를 파악한다.
- 4)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H 군에 소재한 H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학기 이상의 실습경험을 한 2, 3학년 231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검정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도의 H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05, 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인 0.15, 검정력(1- β)은 0.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 인원이 10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231명이였다.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2주간 연구자가 직접 강의실에서 질문지를 집단배부하고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총 231명의 응답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의 학습욕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파악, 적절한 학습전략의 선택 및 실행, 학습결과 의 평가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을 말한다⁵⁾.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란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서의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학습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형식적 상황이나 비형식적 상황에서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과정”이다⁶⁾. 연구도구는 Lee et al.¹⁾이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도구 45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¹⁾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였다.

2.4.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란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말한다⁷⁾. 본 연구에서는 Gu²⁾가 사용한 도구를 저자가 수정, 보완하여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등 5개 영역에 총 30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u²⁾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2였다.

2.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명을 듣고 스스로 기록하게 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는 250부 배부하여,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

중적으로 231부(92.4%)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에 대해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이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7.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학생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년별 임상실습만족도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5) 설문지의 문항 검증에 위해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3. 결과

3.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2학년 48.5%, 3학년 51.5%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96.5%였고, 나이는 20~29세가 70.7%였다. 종교적 특성은 종교를 안 가진 경우가 56.1%였고, 기독교 31.1%, 천주교 8.3%, 불교가 4.5%였다.

3.2.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Table 1과 같았다.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0.43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은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이 3.90±0.56,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이 3.84±0.58, 학습실행의 지속성이 3.67±0.65, 학습전략의 선택이 3.61±0.62, 학습 목표설정이 3.51±0.72, 자기성찰이 3.45±0.64, 학습욕구진단이 3.43±0.5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이 3.14±0.6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N=231)

Categories	Mean ± S.D.
Diagnosis of learning need (10)	3.43±0.50
Establishment of learning purpose (5)	3.51±0.72
Grasping of learning resource (5)	3.14±0.68
Ability of basic self-management (5)	3.90±0.56
Select of learning strategy (5)	3.61±0.62
Durability of learning practice (5)	3.67±0.65
Effort factor of output (5)	3.84±0.58
self-reflection (5)	3.45±0.64
Total score (45)	3.55±0.43

3.3. 간호학생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간호학생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았고, 간호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0.08$, $p=.934$), 간호학생의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26$, $p=.798$).

Table 2. T-test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ategories	Grade2(n=112)	Grade3(n=119)	t	p
	M±SD	M±SD		
Self-directed learning	141.89±17.51	141.71±16.80	.083	.93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03.19±12.45	102.77±12.25	.256	.798

3.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0개 문항으로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라는 5개 항목으로 나눈 만족도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실습내용의 평균은 3.35±0.48이었고, 항목 중 ‘임상실습은 학습 진도에 따른 새로운 경험’은 4.39±0.58로 가장 높았고, ‘실습 중 때때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는 2.93±1.05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실습지도의 평균은 3.78±0.88이었고, 항목 중 ‘임상실습지도자는 성의껏 지도한다’는 4.21±0.83으로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지도자는 흥미있는 방향으로 지도한다’는 3.47±0.88로 가장 낮게 나왔다. 또한 실습환경의 평균은 3.41±0.49로 나왔고, ‘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한다’가 4.12±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을 위한 참고서적이 많다’가 2.61±0.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습시간의 평균은 3.41±0.49로 나타났고, 항목 중 ‘과목별 실습시간 배정이 적절하다’로 3.70±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시간이 불규칙하여 과외활동에 지장을 준다’가 2.71±1.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실습평가의 평균은 3.20±0.49로 나타났고, 항목 중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평가에 참여한다’가 3.65±0.90로 가장 높았고, ‘실습시 부과되는 과제의 양은 적당하다’가 2.85±0.9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은 3.42±0.35로 나타났고, 항목 중 실습지도는 3.78±0.6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실습평가는 3.20±0.49로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전체 평균은 3.42±0.35로 나타났고.

3.5.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r=.44$, $p<.001$)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았다(Table 4).

영역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학습욕구진단과 임상실습만족도($r=.33$, $p<.001$)는 정적 상관에 있었고, 학습목표설정과 임상실습만족도($r=.25$, $p<.001$)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과 임상실습만족도($r=.31$, $p<.001$)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기본적 자기관리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r=.32$, $p<.001$)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습실행의 지속성과 임상실습만족도($r=.40$, $p<.001$)도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과 임상실습만족도($r=.30$, $p<.001$)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자기성찰과 임상실습만족도($r=.24$, $p<.001$)도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요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검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들을 상관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31)

Categories	Item	Mean±S.D.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1. It is getting into new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by learning progress.	4.39±0.58
	2. I take care of patient according to nursing process in clinical practice.	3.55±0.81
	3. Only simple and functional affair repeat in clinical practice.	3.51±0.96*
	4. The practice contents put emphasis on care of disease.	3.39±0.87
	5. The practice contents are divided according to subjects.	3.81±2.80
	6. I perform problem-based nursing to each patient.	3.07±1.05
	7. I am given practice ward affair-centered than learning-centered.	3.49±0.93*
	8. I often feel that I have nothing to do during clinical practice.	2.93±1.05*
Subtotal score		3.35±0.48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9. Clinical practitioner makes for interesting way in practice contents.	3.47±0.88
	10. Clinical practitioner creates a good learning atmosphere for students.	3.49±0.99
	11. Clinical practitioner devotes herself to teaching students.	4.21±0.83
	12. Clinical practitioner makes a plan and organizes a practice contents and paper with students.	3.85±1.02
	13. The number of clinical practitioner is proper for teaching students.	3.77±1.00
	14. The teaching tour of clinical practitioner and conference during practice are help to learning.	3.87±1.01
Subtotal score		3.78±0.68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15. It is desirable to select of practice place according to the subject.	3.98±0.85
	16. It is different of caring patient according to the disease.	3.88±0.91
	17. There are many reference for clinical practice.	2.61±0.95
	18. The number of student in a practice place is proper.	3.62±0.87
	19. The atmosphere of practice place get into tension for students.	4.12±0.88*
	20. It is prepared for room of lecture and conference in practice place.	4.00±0.90
30. The instrument and equipment in practice place is proper for clinical practice.	3.91±0.83	
Subtotal score		3.41±0.49
Time of clinical practice	20. It is proper to assign practice time according to the subject.	3.70±0.82
	21. Because of irregularity, the practice time has harm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2.71±1.01*
	22. A day's practice time is proper.	3.29±0.86
	23. Lunch time and dinner time is sufficient, and facilities are convenient.	3.36±1.01
Subtotal score		3.41±0.47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24. It is satisfying to perform evaluation after practice.	3.16±0.93
	25. It is given notice beforehand to students for evaluation standard.	3.48±0.99
	26. All people related student's clinical practice take part in evaluation.	3.65±0.90
	27. A preconception and prejudice include practice evaluation.	3.14±0.98*
	28. Amount of paper imposing in practice is proper.	2.85±0.91
Subtotal score		3.20±0.49
Total score		3.42±0.35

* reversed record mean score

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92로 검정통계량(1.986)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450~.715으로 0.1이상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399~2.222로

Table 4. Correl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31)

	LN	LP	LR	SM	LS	LPR	ER	SR	SD	SCP
LN	-									
LP	.522 (<i>p</i> <.001)	-								
LR	.637 (<i>p</i> <.001)	.418 (<i>p</i> <.001)	-							
SM	.385 (<i>p</i> <.001)	.407 (<i>p</i> <.001)	.378 (<i>p</i> <.001)	-						
LS	.493 (<i>p</i> <.001)	.423 (<i>p</i> <.001)	.491 (<i>p</i> <.001)	.456 (<i>p</i> <.001)	-					
LPR	.434 (<i>p</i> <.001)	.360 (<i>p</i> <.001)	.277 (<i>p</i> <.001)	.426 (<i>p</i> <.001)	.375 (<i>p</i> <.001)	-				
ER	.490 (<i>p</i> <.001)	.364 (<i>p</i> <.001)	.362 (<i>p</i> <.001)	.394 (<i>p</i> <.001)	.461 (<i>p</i> <.001)	.437 (<i>p</i> <.001)	-			
SR	.418 (<i>p</i> <.001)	.408 (<i>p</i> <.001)	.449 (<i>p</i> <.001)	.311 (<i>p</i> <.001)	.420 (<i>p</i> <.001)	.225 (<i>p</i> <.001)	.336 (<i>p</i> <.001)	-		
SD	.836 (<i>p</i> <.001)	.720 (<i>p</i> <.001)	.733 (<i>p</i> <.001)	.643 (<i>p</i> <.001)	.633 (<i>p</i> <.001)	.633 (<i>p</i> <.001)	.672 (<i>p</i> <.001)	.634 (<i>p</i> <.001)	-	
SCP	.334 (<i>p</i> <.001)	.252 (<i>p</i> <.001)	.313 (<i>p</i> <.001)	.320 (<i>p</i> <.001)	.287 (<i>p</i> <.001)	.402 (<i>p</i> <.001)	.302 (<i>p</i> <.001)	.242 (<i>p</i> <.001)	.438 (<i>p</i> <.001)	-

LN : Learning Need, LP : Learning purpose, LR : Learning resource, SM : Self management,
 LS : Learning strategy, LPR : Learning practice, ER : Effort factor of result, SR : Self-Reflection,
 SD : Self-directed learning, SCP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기준치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86,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215로 측정변수들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1.5%이었다. 임상실습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beta=.138$),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beta=.124$),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beta=.090$), 학습욕구 진단($\beta=.070$), 학습실행의 지속성($\beta=.037$)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목표 설정($\beta=-.043$)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31)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Constant	55.972	6.286		8.904	.000		
Diagnosis of learning need	.165	.207	.070	.795	.427	.450	2.222
Establishment of learning purpose	-.140	.243	-.043	-.575	.566	.636	1.572
Grasping of learning resource	.484	.281	.138	1.722	.087	.541	1.848
Ability of basic self-management	.521	.299	.124	1.741	.083	.689	1.451
Durability of learning practice	.137	.259	.037	.531	.596	.715	1.399
Effort factor of output	.367	.294	.090	1.246	.214	.660	1.516

Adjusted $R^2=.215, F(p)=9.858(p<.001)$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0.4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평균이 '보통(3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기본적 자기 관리능력'이 평균 3.90±0.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이 평균 3.14±0.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이 형식화되어 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학습하다보니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Spear와 Mocker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환경과 환경배치를 주장하여, 환경배치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⁸⁾.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중요한 요소인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간호학생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08$, $p=.93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의 솔선수범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상된다고 하였으나⁹⁾,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3학년 모두 6주의 1학기 임상실습이 완료된 상태이고, 교육과정 중 전공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였기 때문에 발달 경험상 2, 3학년 모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성장한 결과라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26$, $p=.798$). 그러나 Gu에 의하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²⁾, 이는 학년에 따른 학습준비도의 차이에 따

른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실습 전에 임상실습에 필요한 의학용어와 기본간호술의 완전학습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설문조사가 2, 3학년 모두 1학기 실습이 종료된 시점에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3.42±0.35로 Seo⁹⁾의 연구결과와 Han⁷⁾의 연구결과 보다는 높았으나, Lee¹⁰⁾의 연구결과에서 프리셉터군 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실습 지도에 프리셉터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실습지도는 3.78±0.6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실습평가는 3.20±0.49로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실습평가가 가장 낮게 평균이 나왔던 Seo⁹⁾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나, 실습지도가 가장 낮게 평균이 나왔던 Gu²⁾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가 반복됨에 따라 '실습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고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실습평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항목 중 '평가시 선입견이나 편견이 포함된다'가 3.14±0.98, '실습시 부과되는 과제물의 양은 적당하다'가 2.85±0.91로 이들의 평균 점수가 낮아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평가방법들은 대부분 질문, 면담 및 관찰방법 등을 활용하며 학습자의 자기통제 학습행동들의 확인을 통해 학습자의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³⁾. 따라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임상실습평가 도구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임상실습과 병행하기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임상실습에 꼭 필요한 과제물 부과를 통해 효율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r=.44$, $p<.001$)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11)~14)}, 자율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¹⁵⁾와는 유사하였다.

Joo에 의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본가정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으며, 자기 판단적 기준에 의한 인지적, 언어적, 동기적, 환경적 그리고 능동적인 자기통제 학습자로 간주한다고 하였다³⁾.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는 자기통제적인 학습자는 환경적으로 급변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임상환경에 적응을 잘 할 것이고, 더불어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군이 간호학 전공만족도도 높다는 연구결과^{11)~14)~16)}로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강화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적응능력도 같이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86,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은 .215이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요인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1.5%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으로는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과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이었다. 이런 결과는 학교의 환경과는 다른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습을 위한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습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자원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욕을 높이고 임상실습만족도도 같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학습을 위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상의 참고자료 개발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임상실습시 학교와 집과도 떨어져 생활하여 자기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임상실습만족도의 저하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실습지도시 숙소관리도 함께 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기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와 정서적 지지도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요인 중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과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H 대학 2,3학년 학생들로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231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평균 3.55 ± 0.43 으로 나타났고, 항목 중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이 3.90 ± 0.56 으로 가장 높게,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이 3.14 ± 0.6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t=0.08, p=.934$), 간호학생의 학년별 임상실습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6, p=.798$).

셋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42 ± 0.35 로 나타났고, 항목 중 실습지도가 3.78 ± 0.68 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실습평가가 3.20 ± 0.49 으로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넷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r=.44, p<.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인은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실행의 지속성 순이었고, 이들 변수들의 임상실습 만족

도에 대한 설명력은 21.5% 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H 대학 간호과 학생에 국한되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교수의 역할은 자기주도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임상 실습전 학습준비도를 평가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담회를 활성화하며, 평가방법의 다양한 적용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은 학습자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개혁의 노력과 교수자의 교수법과 학습환경 개선이다. 특히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교수전략 활용능력과 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할 풍부한 참고자료들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간호학생들의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및 강화는 성공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간호전문가로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References

1. Lee SJ, Chang YK, Lee HN, et al.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2. Gu H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2):205-215.
3. Joo HS. Conceptualiz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03;21(1): 203-221.
4. Kim IS, Lee JH. Analysis for preparing self-directed learning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Theory and Implement, 2003;13(2):129-154.
5. Long HB. Self-Directed Learning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995.
6. Ann MA. The study of preparing self-directed learning of adult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2008.
7. Han S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 6(1):132-146.
8. Spear GE, Mocker DW. The organizing circumstance : Environment determinate in self-directed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1984;35: 1-10.
9. Seo WH.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10. Lee JD. The study of preceptor-guided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6.
11. Yang JJ.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159-165.
12. Kim YH.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 Nursing, 2009;16(3):307-315.
13. Jung JS.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2012; 18(1):53-61.
 14. Cho IY.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 15(6):3635-3647.
 15. Bae KS, Song AR, Kim YH, et al.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level with PBL-based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 the Maternal-chil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7;13(2):92-106.
 16. Park HS, Han JY.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e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26(3): 695-706.